

2011 Christmas Worship Dec. 25

귀한 동역자님들께,

안녕하세요? 캄보디아국립대학의 정지웅 선교사입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지난주 크리스마스 예배와 모임을 큰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잘 마쳤습니다. 제자들과 그들의 초대를 받은 더 많은 이들과 함께 제자하우스는 가득 찼습니다.



25 일 아침 8시 30분, 한명씩 한명씩

먼저 제자들이 도착하였습니다. 10명정도 모여 예배와 이후의 모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말은바대로 장식, 예배 순서 준비, 게임과 음식 등을 점검하고 준비하였습니다.

11시 예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초대받은 친구들이 들어와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방명록을 쓰고, 주보를 받고, 좌석을 안내받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등, 금새 제자하우스는 시끌시끌 와글와글한 말 소리, 웃음 소리로 가득찼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가 되어, 예배를 인도할 싸겔과 저는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후 우리 모두는 싸겔의 인도에 따라 예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내 그의 옆에서 그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John 3:29

이번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 가장 주목할만한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제자들의 약진일 것입니다. 그들의 성장한 모습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전체 약 50명 정도의 참석자 중에서 그동안 양육받아 온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배를 인도한 싸결, 성경 봉독의 티어리, 통역 보조의 찌보완, 게임 보조진행의 마까라, 캄보디아 전통 생선튀김 요리(뜨러이 범뽀운)를 선보인 쎬레이롯, 그리고 주차안내의 괴롬, 환영카드작성의 싸운, 자리안내의 쑤안 등 모두 자기일을 최척 멋있게 섬겼습니다.



Sakal



Theary



Chivon



Makara



Sereyrath



저희는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후 게임과 친교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주보 종이의 색깔 별로 팀이 되었고, 이후 크리스마스 OX 퀴즈, 손잇기, 말 전달하기 등의 게임 순위에 따라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2011년 크리스마스, 이곳 캄보디아 프놈펜의 제자하우스는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모든 동역자님들께 즐거이 전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Happy Birthday Jesus!



2011년 12월 25일

정지용, 조은영, 온유, 주언 드림